

제168회 임시회 개회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등 -



중랑구의회 제168회 임시회가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개최되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22일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을 심사하며, 마지막 날인 4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사항과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과 함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 임시회를 폐회하게 된다.

의정포커스

제167회 임시회 주요 처리안건

지난 3월 10일부터 8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67회 임시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행정수요 변화에 맞추어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재 지적과의 명칭을 부동산정보과로 변경하기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중랑천유역에 위치한 8개 지방자치단체가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상호협력 하에 하천유역을 공동 관리함으로써 생태하천 복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유역전체 발전을 지속적으

로 추진하기 위한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 등이 처리되었다.

한편 임시회 마지막 날인 3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신하균 의원(면목3·8, 망우3동)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중랑구 망우동 산 69-1에 위치한 용마도시자연공원은 1983년 4월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지정받아 운영해오던 중 1999년 최종 부도로 인해 12년째 중단된 상태로 지역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휴식공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용마공원 정상화를 위해 토지주가 계획 중인 안을 수용하여 민영화 하든지, 토지주의 사업계획안이 타당하지 않다면 구청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의회 의원들

서울의료원 현장방문

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4월 11일 2년 10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3월 25일 개원한 서울의료원을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병원시설을 살펴봤다.

신내동에 개원한 서울의료원은 지하 4층, 지상 13층 623병상 규모의 첨단시설을 갖춘 종합시립병원으로 동북권 공공의료의 허브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서울의료원 대회의실에서 김수자 의장은 시설운영자와 의료진에게 “노인, 저소득층 등 의료소외계층에 소홀함이 없이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준은 물론, 상대적으로 공공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균형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근종 부의장은 “서울의료원의 신내동 이전이 확정되었을 당시 지역 주민들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었다”며, “서울의료원 인력채용 시 중랑구 주민들을 우선 채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녹색생활 실천 ‘우리가 앞장’

- 중랑구의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 -



구의회 의원들이 제 66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4월 1일 용마산 가족공원 주변 일대에서 ‘꿈과 희망 그리고 사랑’을 심는 주제로 열린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하였다. 용마산 가족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실시된 이날 식목행사에 회장갑을 끼고 삼을 든 의원들은 50cm 왕벚나무 묘목 2~3그루씩을 손에 쥐고 흙을 파낸 자리에 나무를 심었다.



이날 행사에서 김수자 의장은 “조림의 필요성은 단순히 목재를 생산한다는 의미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숲의 가치가 중요시 되고 있다”면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고 푸른 중랑을 가꾸기 위해서는 구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나무심기를 권장하였다.

여성의원들

언론기자와의 간담회 가져



구의회 여성의원들은 지난 4월 4일 6층 의장실에서 중랑신문, 중랑뉴스 등 관내 언론사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수자 의장을 비롯한 김정례, 신

정일, 은승희 의원 등 여성의원들과 관내 언론사 기자들이 구의회 의정방향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여성의원들은 지역언론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배려하는 보도로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